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823호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코스피 3013.25 (+42.23)
코스닥 1032.31 (-9.61)
금리(국고채 3년) 2.018 (+0.052)
환율(원·달러) 1185.10 (-0.20) 〈22일〉

[경제종합]
김부겸 만난 정의선
일자리 4.6만개 약속
청년 취업시장 '온기'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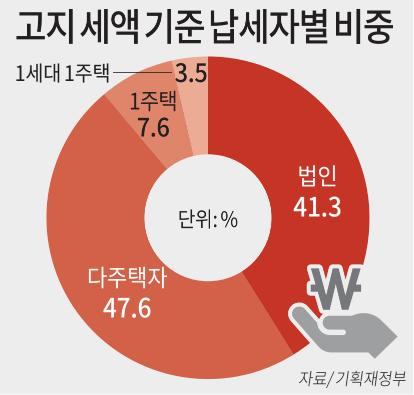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

김부겸(앞줄 왼쪽부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뉴시스

종부세 대상 95만명 세액 4조 늘어 5.7조

작년比 대상자 28만명 42%늘어
기재부, 국민 98% 부과대상 아냐

2인 이상 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
1명당 평균 332만원 늘어 602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약 95만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30만명 늘어 4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98%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관련기사 4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총 94만7000명이 받게 된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명(42%) 늘어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1년(1조8000억원)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종부세 대상 1명 당 내는 평균 세액으로 보면 올해 602만원으로 지난해(270만원)보다 약 332만원 가량 부담이 커졌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액이 늘어난 이유로 2인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총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을 납부하는데 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인 41만5000명이 2조6000억원으로 대부분 부담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납부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 13만2000명은 2000억원을 부담한다. 이 중 73%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또 1주택자의 경우 고지 인원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3.9%, 세액 비중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제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밝힌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94만7000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정한 76만5000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올해부터 상승한 세액비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3면에 계속〉

/원승일·박태홍 기자 won@metroseoul.co.kr

이재현 CJ 회장 '레드바이오' 키운다

CDMO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76% 2677억원에 인수 의결

CJ, 3분기 바이오 영업익 61%↑
내년 '레드' 합산땐 규모확대 전망

이재현 CJ그룹 회장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심상치 않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사업을 낙점, 그린바이오(사료·식품소재)와화이트바이오(친환경 소재)에 이어 최근 레드바이오(의약·의료) 키우기에 나섰다.

이 회장은 최근 진행된 중기 비전 발표에서 3년간 10조원을 투자해 4대 미래성장엔진(컬처, 플랫폼, 웰니스, 서스테이너빌러티)을 키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닷새 만에 바이오 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인수하며 레드바이오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약 76%를 2677억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 공시했다.

CDMO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원료 의약품, 임상시험용 시료, 상업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CDMO 시장 전망 역시 밝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장은 2019년 15억2460만 달러(약 1조7790억원)에서 2026년 101억1350만 달러(약 11조8014억원)로 연평균 31% 성장이 예상된다.

CJ제일제당은 최근까지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의료 공익재단, 유명대학 부설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바이러스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제조 역량을 구축해 왔다.

사측은 이번 바타비아 인수로 글로벌 유전자치료 CDMO 시장에 진입하며 기존 레드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제일제당은 생명과학정보기업 '천랩'을 983억원을 들여 인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 역량을 확보한 바 있다. 천랩은 2009년 설립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R&D)에 특화한 바이오 기업으로 신약 관련 미생물 데이터 분석능력과 기초 연구 단계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CDMO 투자로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문 매출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CJ대한통운 제외)이 각각 4조2243억원, 3222억원으로 분기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중 바이오사업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442억원, 12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4%, 61% 증가했다. 내년부터 천랩, 바타비아를 통한 레드바이오 분야의 매출까지 합쳐지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천랩의 매출은 53억원, 바타비아 매출은 309억원이다. 올해 말 인도네시아 내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인 PHA 생산시설이 준공되면 내년 초부터 화이트바이오 부문에서도 매출이 발생한다.

CJ제일제당은 5000톤 규모 PHA 전용 생산 시설 구축중이다. 또 화이트바이오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국내 고분자 컴파운딩 1위 기업 HDC현대EP와 바이오 컴파운딩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컴파운딩은 2개 이상 플라스틱 소재를 최적의 배합으로 혼합하는 생산공정을 일컫는다. 양사는 2022년 3분기 생산를 목표로 240억원의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트리플 악재에도 위안화 강세… 6년래 최고치

차이나 뉴스&리포트

CFETS 위안화 지수 101.82 기록
10월 상품수지 흑자 '역대 최고치'
"中 정부, 성장둔화·수출감소 우려"

중국 위안화가 강세다.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전력난에 따른 우려와 헝다 사태, 경제성장률 쇼크 등 연이은 악재에도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달러 등 다른 통화 대비 가치가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에 따르면 CFETS 위안화 지수는 지난주 101.82로 2015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FETS 위안화 지수는 달러를 비롯한 주요 13개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해 산출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강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시 환율은 달러 대 위안화가 지난 18일 6.3803위안으로 내려가면서 지난 5월 31일 기록했던 달러당 6.36위안에 근접했다.

일단 중국의 수출 호조가 위안화 강세를 이끌었다.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됐다. 10월 상품수지 흑자는 84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와 함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의 결제가 늘고,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안화 자산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위안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중국 당국은 단속에 나섰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외환거래위원회(CFEC)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지침에 따라 시중 은행들에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CFEC는 은행에 외환거래 자문을 하는 조직이다. 은행들은 권고에 따라 분기 기준 자기자본 거래가 50% 이상 늘 경우 내부 검토 작업을 통해 투기적 거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싱가포르 TD증권 미툴 코테차 아시아·유럽 수석전략가는 "이번 조치는 위안화 투기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안화 강세는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강세를 일부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환율 강세가 수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을 낮추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을 당시에는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환율 안정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을 늘리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8월에도 홍콩에서 250억 위안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금리도 상향 조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대통령,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에 "있을 수 없는 일"
▲ 靑 "국민과의 대화 대본 있었다? 전혀 사실 아냐" /사진 뉴시스

▲ 윤석열 '3김 선대위' 제동?…김종인 "더 할 얘기 없어"
▲ 국토위 '대장동 방지법' 두고 여야 충돌…고성·삿대질 속 파행

▲ 심상정 "안철수, 조건 없이 만나자" 제3지대 공조 제안 /사진 뉴시스
▲ G7, 내달 회의에 한·아세안 초청… 한일회담 성사 주목